

뒷뚜르 이렁지의 하소연

이완 지음

열두살 된 어린이(현재 동춘국교 6학년)가 쓴 환경동화. 유원지에 버려진 라면 봉지 밑에서 죽어가는 민들레 어린 짝의 이야기를 다룬 '들레의 소원', 곰속에서 만난 어린왕자와 함께 지구환경의 파괴에 대해 염려하는 '바오밥나무의 교훈',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도 마구 버리는 요즘 세태를 비판한 '짜 잃은 실내화' 등 지구사랑에 관한 18편이 수록됐다. '뒷뚜르'는 지은이가 사는 동네 '후평동'의 옛 이름이다.

현암사/B6변형/130면/4800원

내가 촛불이야? 꺼지게

김중우 지음

주부인 저자가 장애아를 입양, 양육하는 과정을 쓴 육아일기. 한쪽 팔이 짧다는 이유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셋째 아이로 기르면서 겪는 변화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해주는 저자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심음과거름/A5신/190면/4000원

로빈훗의 모험

하워드 파일 지음/고낙준 그림

영국의 전설 속의 영웅으로 사랑받는 로빈훗의 이야기. 로빈훗은 셔우드 숲을 근거지 삼아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통쾌하게 혼내준다. 로빈훗은 우리나라 「홍길동전」의 홍길동과 같은 존재. 뛰어난 활솜씨와 지혜를 겸비한 로빈훗의 의로운 활약이 자못 흥미롭다.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만화를 곁들였다.

재능출판/A5신/184면/4000원

어느 의사의 길고 긴 이야기

카렐 차페크 지음/햇살과나무꾼 옮김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인 작가의 동화. 표제작은 여러 의사들이 전하는 꿈과도 같은 치료경험담. 그중에 호루시츠키라는 의사는 춤을 추다가 골절상을 입은 요정 발을 치료해준다. 잠자리 날개에 붙은 얇은 막을 벗겨 버팀목으로 사용하고, 파란 달빛으로 봉대 대신 감았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다. 작가의 상상세계를 엿볼 수 있는 7편의 동화가 수록됐다.

한길사/A5신/218면/7000원

어화둥둥 두리 둥둥 (상·하)

기청 지음

국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어린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곁들였다. 간혹 내용중에 어려운 말은 따로 풀이해 놓아 국악 교재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상권은 국악의 역사와 특징, 음악의 갈래 등을 다뤘고, 하권은 다양한 국악기와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등을 소개했다.

세광음악출판사/A4/각 144, 136면/각 9000원

복동이의 함께보는 북한 이야기·외

최성수 엮음/주영광 그림

북한 지방에 전래되는 22편의 옛이야기 모음. '장난꾸러기 너구리'는 은율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 참외밭 오두막에서 참외가 누렇게 익기를 기다리던 할아버지에게 아주머니로 변장한 너구리가 나타나 갖은 장난으로 할아버지의 혼을 빼놓는다. 동시출간된 「이룬이와 함께보는 북한이야기」도 같은 형태의 책.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주는 만화와 수수께끼가 수록됐다.

청솔/각 224면/각 4000원

꼬마친구 올리비에

로베로 사바티에 지음/박승조 옮김

도시 빈민가에 사는 올리비에와 그의 친구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소설. 몽마르트 언덕에 살면서 삶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올리비에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 롤루,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으시대는 캅드베르 등이 등장한다. 총 30개의 독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책세상/A5신/350면/6000원

달려라 저 셋별까지

이지원 지음

어느날 시골에서 전화 온 경문이라는 무뚝뚝하고 거친 아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이들 세계를 그린 장편소설. 항상 어울려 다니던 민경, 승현, 수빈, 은지, 보람 이들 오총사는 처음에 경문이와 같이 놀기를 꺼리지만 자동차 사고로 아뻏을 잃은 경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자 서로 마음을 터놓는다. 어린이들의 우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재능출판/A5신/184면/4000원

손바닥 그림책 (1~6)

신지윤 지음/신혜은 그림

부피가 손바닥 만큼이나 작고, 각권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 놀이책의 기능이 강하다. 내용중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동물들이 뚫린 구멍으로 지나가고, 그 구멍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림을 단순화시켰으며 영아들이 구멍속으로 손을 넣어서 책을 넘길 수 있게

제작했다. 1~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책. 웅진출판/A6변형/각 18면/각 2500원

수채화 그림방

대처 허드 존 캐시디 지음/문은실 엮음

부록으로 들어 있는 물감과 붓으로 책 속의 48면에 이르는 도화지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액트북. 붓 다루는 법에서부터 그보다 좀더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른 그림자 모양, 원근법, 정물화, 풍경화 등을 소개한다. 또한 어린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림으로 표현케 하는 장을 마련해 두어 '창의력과 표현력 기르기'에 중점을 두었다.

성인문화사/A4/72면/15,000원

신비한 우주·외

편집부 엮음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라루스 백과' 시리즈(전12권 출간 예정) 가운데 세권이 먼저 출간됐다. 「신비한 우주」는 어린이들에게 우주의 현상과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한 흥미진진한 책. 별이 무엇인지, 낮과 밤이란, 4계절이 왜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시출간된 「인류의 역사」와 「동물의 세계」는 인류의 변천과정과 150만종에 이르는 동물들의 특징과 생태를 보여주는 책.

아름드리/B6/각 128면/각 7300원

요술 분필

진켄 호프 지음/김성숙 옮김

주인공 은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요술 할머니가 떨어뜨린 요술 분필을 줌게 된다. 보통 분필과 다름없는 이 분필로 그림을 그리자 그것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초로 그린 그림에서 튀어나온 '소프트'라는 친구를 얻게 된 은은 커다란 대문을 그리고 들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때부터 새로운 모험세계가 펼쳐진다.

중앙미디어/A5신/204면/4000원

청백리 이야기 (1·2)

김원각 엮음

신분에 상관없이 충·효·청백리 이야기로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조상들 75명의 이야기. 울타리도 없는 집에 살았다는 유관 정승, '공당문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정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깨끗하고 깨끗한 관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관리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맹사성, 이외에 황희, 유성룡, 기건, 이약동 등 여러 인물들을 다뤘다. '생각키우기'란을 마련해 내용 이해에서부터 본문과 관련된 속담, 고사성어, 단어를 이용한 짧은 글짓기 등 사고력을 키워준다.

천재교육/A5신/각 184, 192면/각 4800원

앗! 할아버지 코는 어디 갔어요?

김만석 지음/장양선 그림

피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민학생 새롭이가 어느날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펼쳐지는 신기하고도 재미난 이야기. 이상한 할아버지는 나가 놓고 싶어하는 새롭이에게 분신을 만들어주어 새롭이가 맘껏 놀게 해주거나 새롭이를 괴롭히던 형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 주기도 한다. 새롭이와 할아버지가 쥐로 변해 쥐도시로 가서 벌이는 모험도 흥미진진하다. 자작나무/A5신/150면/3800원

나의 책 달력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각 학년별 인지발달에 따라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게 한달에 3권씩 체계적으로 읽도록 만든 독서활용 프로그램. 추천한 책마다 읽는 관점과 줄거리를 소개한 후 편지나 그림, 연극, 조사, 실험, 이야기 이어쓰기, 독서감상문 쓰기 등 갖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실친 함으로써 독서경험을 충분히 응용케한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용이 각각 1·2권으로 출간됐다.

사계절/B5/각 136면 내외/각 4000원

어서 오세요, 크리스마스 백화점입니다.

레이 시퍼드 지음/차미례 옮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12편의 단편을 수록한 소설 모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으로 한 마네킹이 토머스 캐바노프라는 이름의 생명체로 태어난다. 그는 백화점 안내원으로 행세하면서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백화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다.

웅진출판(주)/A5변형/각 12면/각 4500원

대도둑과 피보 바보

프로이슬러 지음/이영과 옮김

독일 아동문학상 수상작. 어느날 소년 카스 팔네 할머니 집에 침입한 도둑이 커피 가는 기계를 훔쳐가자 카스팔네 친구와 함께 이 도둑을 잡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도둑에게 붙잡혀 도둑의 소굴로 끌려가고 만다. 두 소년과 도둑이 벌이는 소동을 익살스럽게 그린 동화.

중앙미디어/A5신/200면/4000원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3·4)

이정범 지음/이희탁 그림

어린이들이 불교를 처음 만나면서 알아두어야 할 불교와 건축물, 상징물 등을 위주로 설명하는 유아용 불교교재. 제3권은 연꽃, 코끼리, 사자 위주로, 제4권은 스님, 합장, 죽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인 동화형식의 책이다.
불지사/B6변형/각 70면/각 4000원

마틴 루터 킹

권태선 지음/강우근 그림

1963년 4월 3일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공공 시설에서의 흑백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체포됐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전기. 킹 목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쓴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가운데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흑인이라는 이유

자른 어머니'는 맹자를 성인으로 만든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과 지혜를 그렸다. '청둥오리와 박수'는 중국 북평에 전해오는 이야기. 주인은 요리사가 정성껏 만든 요리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하면서 매번 요리맛만 해낸다. 보다못해 요리사는 주인을 꿀탕먹일 궁리를 하는데...

웅진출판/A5신/216면/4000원

1999년, 그날 대공포

아동기획부 엮음/이규성 그림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생애와 그의 예언집 「모든 세기」를 토대로 세계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모은 책. 제1장은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던 당시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 의술을 배웠던 그의 생애이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철망으로 배를 물 위에 띄우는 법, 위치가 다른 두 컵 사이로 물을 움직이는 법, 소금 결정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법 등 신기하고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과학의 비밀을 풀어본다.

웅진출판/A5변형/238면/4500원

다니네 아저씨의 신나는 이야기

에버스 지음/이가연 옮김

사내아이 '다니'가 줄곧 쫓아다니는 윌리엄 아저씨의 모험기. 맹수사냥, 서부의 인디언과 벌인 환관 전쟁, 해적과의 싸움 등 윌리엄 아저씨가 겪은 모험얘기를 듣노라면 설새없이 웃음이 나온다. 작가는 '훌륭한 글을 쓰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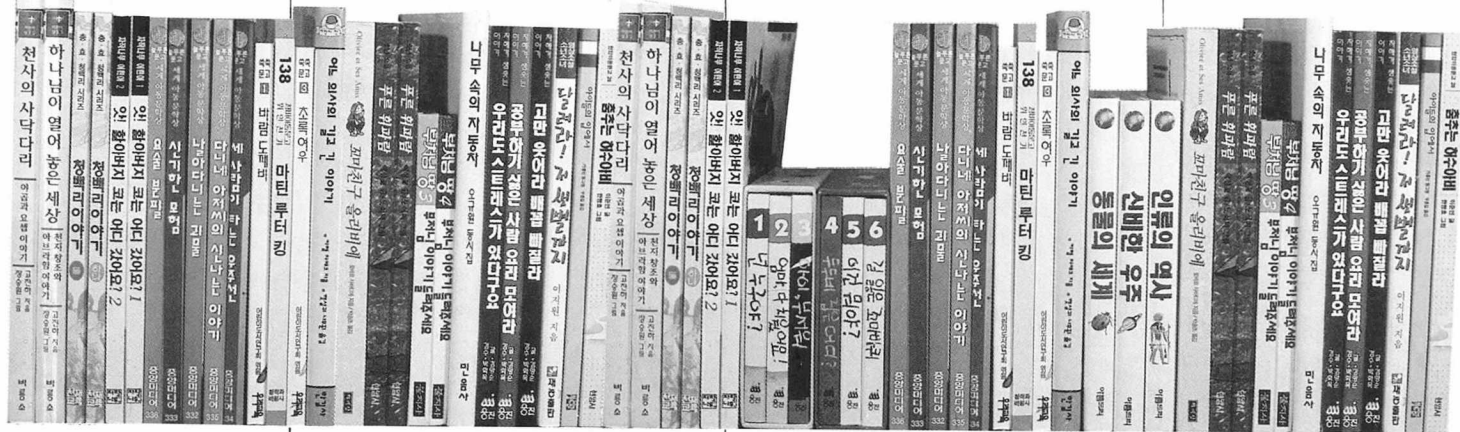
있어 좀체로 감기를 팔 수 없다. 판자집에 도착한 바람 도깨비는 소녀에게 감기를 옮기려다가 도리어 소녀의 효심에 감동해서 스스로 따뜻해지고 만다.

우리교육/A5변형/160면/3800원

나무 속의 자동차

오규원 지음/김세은 그림

「분명한 사건」「이 땅에 썩어지는 서정시」 등 여러권의 시집과 시론집을 낸 바 있는 시인(서울예전 문예창작과교수)의 동시집. '책상과 화분과 꽃' '새와 나무' '봄에서 겨울까지' '산에 들에' 전4장으로 나누어 50여편을 실었다. 시인은 '동시를 동심으로 볼 수 있는 시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시적인 시각으로 동시의 자리를



만으로 백인 친구를 사귄 수 없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소년에서 인종차별의 벽을 부수어가는 정의의 투사로, 민권운동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창작과비평사/A5변형/192면/3500원

하나님이 열어 놓은 세상·외

고진하 지음/장승원 그림

어린이들을 성경의 세계로 이끄는 책. 시인이자 목사인 저자가 "어린이들이 보물섬을 찾아 나서듯 성경 속의 이야기의 샘들을 찾아 나서도록 할 수는 없을까"하는 바람으로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맞게 풀어 놓았다. 제2권 「천사의 사다다리」는 천사와 씨름해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 이야기와 해몽을 잘해 이집트 부왕이 된 요셉 이야기다.

비룡소/A5신/각 164, 170면/각 5000원

공부하기 싫은 사람 요리 모여라

김양순 지음

60여 편의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그 가운데 '베를

린 히틀러와 제2차대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후세인과 걸프전쟁 등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정확하게 맞춘 그의 예언시 풀이다.

중앙미디어/A5신/222면/4500원

딩동~하나님 편지 왔어요!

임희영 엮음/임은주 그림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띄운 편지 모음. 하나님에 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흥미진진하다.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하나님, 제가 한 약속은 지켰어요. 근데, 자전거는 어디 있지요?" 등등 짤막하지만 익살스러운 편지에서 아이들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아가페/B6변형/144면/3000원

숨은 과학 1

서울과학교사모임 엮음

생활 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게 해 볼 수 있는 실험 35가지를 모은 책. 비누, 수도와 물, 소금, 유리컵, 빨대 등으로 비눗방울로 철사를 움직이는 법,

쓸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용기를 갖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전한다.

미나마따의 붉은 바다

공해병의 일종인 수은 중독증 '미나마따'병이 발생한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저자가 쓴 환경동화.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국제환경회의에 참여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던 시노부의 이야기, 잔 다르크로 불렸던 도모코, 훌륭한 마음의 통역사 교코,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일본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가즈후미 등 이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이시카와 사유리 쇼'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바람도깨비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각기 다른 작가들이 쓴 12편 동화 모음. 표제작 '바람 도깨비'는 감기를 팔러 다니는 바람 도깨비의 버릇없는 활약을 그렸다. '감기 사세요, 감기 사세요' 외치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외투 혹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장을 하고

잡'게 됐다고 한다.
민음사/A5신/154면/5000원

아이들의 입에서

카롤린 봉그랑 지음/우종길 옮김

아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그린 소설. 열한살의 앙리엘라는 어느날 신문에다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부고를 낸다. 가출한 아빠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인 엄마의 애인을 찾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사라진 아빠의 가방을 들추다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고 주인공은 멍해진다. 작가는 「밀줄 굵은 남자」로 이미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열린책들/A5신/160면/2800원